

해남군, 군민이 함께하는 전복사주기 캠페인 성황... "1.5톤 판매"



해남군이 수산물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전복 소비촉진 캠페인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우리 수산물 지키자” 군민 동참 이어져 15일 매일시장 현장판매 행사도 성료

군은 8월말부터 일주일간 땅끝해남 전복 사주기 행사를 펼친 결과 약 1.5톤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행사를 통해 군 공직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군민 개별 구매까지 900여명이 캠페인을 통해 전복을 구매, 어가에 힘을 보탰다. 해남군전복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전복을 공급했으며, 군 공직자들이 소비자 주문을 받아 발송업무를 처리하는 등 어가들의 바쁜 일손을 도와 호응을 얻었다. 사전신청 받은 전복은 택배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순차 발송하거나 15일 해남매일시장에

서 현장 배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특히 이와 관련 15일 매일시장에서는 전복 먹는 날·야시장 행사가 개최되었다. 캠페인을 통해 구매한 전복을 현장 수령하는 한편 사전 주문과 별도로 100박스 한정 현장 판매도 실시했다. 현장판매는 매일시장 상인회에서 협조하여 당일 시장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5,000원을 할인해 2만5,000원 가격에 11-12미 전복 1kg를 판매, 큰 호응속에 조기 매진 되었다.

또한 해남군전복협회와 매일시장 상인회가 협력하여 야시장에서 전복 물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야시장 상인들은 전복을 이용한 요리와 안주도 선보여 야시장을 찾은 많은 군민들과 함께하는 전복 소비 촉진의 장이 되었다. 한편 해남군은 관내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수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을 수립, 해남 수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수산물 관촉방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경기 안양시와 연계한 전복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전복 사주기 캠페인에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수산물 지키기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송가인과 함께하는 추석맛이 ‘진도토요민속여행’ 특별공연

천개지문(천궁), 진도북놀이, 화답 등 다양한 공연 선보일 예정

진도군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가향”을 주제로 추석맛이 진도토요민속여행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종합창작연주 음악인 ‘천지개문(천궁)’, ‘진도북놀이’, ‘추석

명절 특별공연인 ‘화답’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화답’은 우리 군 출신 가수 송가인이 출연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지역 주민들에 화답하는 의미로 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을 연출해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토요민속여행은 지난 1997년 4월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86회 공연에 39만 1천여명의 관객이 관람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만 생태공원, 국가정원 지정에 힘 모으자”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 보고회

“강진만 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읍시다” 강진군은 지난 15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추진사항 보고회는 서순철 부군수, 오선옥 추진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기증 운동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위원들의 기증 참여 사항 공유와 함께 읍면별로 기증 접수 현황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향후 강진군 지방정원을 포함해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수립 및 기본구상 용역사항을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조직구성원이 읍면 사회단체장까지 포함돼 있고,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추석연휴에 군민들과 향우들에게 적극 홍보해 자발적으로

나무기증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강진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구성돼 생태공원과 지방 정원 일원의 조성사업에 군민과 향우 등에게 나무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의 정문문화 홍보를 자발적으로 추진해 하나 된 힘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을 녹색 경관으로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무 기증 접수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총 73건에 984본이 접수됐다. 이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3건 167본이 접수됐고 활용가능 본수는 72본이다. 오선옥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무기증 운동에 솔선수범해 강진만 생태공원이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신청 접수...최장 5년까지

장흥군이 9월 28일부터 전입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흥형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장흥군에서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3. 3. 28. 이후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중 세대주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희망주거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까지 10만원의 월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최대 5년까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가볼 만한 곳 사진·UCC 공모전 진행 지난해 11월 이후 촬영한 사진 및 UCC 10월 31일까지 접수

완도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특색있는 관광자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굴하고자 10월 31일까지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 만한 곳’이다. 공모 대상은 완도 해양치유 체험, 지역 특산물(품) 체험, 한 달 살기 체험, 지역 문화 체험, 레저 활동, 축제·행사 체험, 숙박·음식 체험 등이며, 2022년 11월 이후 촬영한 미발표작 사진 및 UCC이다. 출품 가능 수량은 사진은 1인·1팀당 3점 이내, UCC는 1인·1팀당 1점 이내이다. 대한민국 국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완도군청 관광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 이메일(act907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사진 분야는 대상 1점, 최우수 2

점, 우수 8점, 장려 10점, 입선 30점, UCC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3점, 장려 4점으로 총 61점을 선정한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2023년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사진과 UCC를 선정하여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번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0월 12일까지 공모전 포스터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